

제17차 한일중 산업보건 학술집담회 참관기

가톨릭대의대 예방의학교실 / 이 세 훈

제17차 한일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제주도 오리엔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모임에는 1984년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학술집담회의 창설에 노력하신 우리나라의 조규상 교수님과 일본의 Shuren Inui(修然 乾, Kyoto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선생님 등 두 분이 모두 참석하였다. 참석자수는 우리나라 대표인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최병수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125명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대표인 전 일본산업의과대학 총장인 Toshiteru Okubo 교수를 비롯하여 55명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대표인 베이징의대의 Sheng Wang(王生) 교수 등 70명으로 모두 250명이 참석하였다.

학회의 구성은 지난 10월에 필자와 일본산업의과대학의 Toshiaki Higashi 교수 및 베이징의대의 Sheng Wang 교수 등 간사 모임에서 의논한 대로 이전의 형태를 고수하기로 하였다. 단, 자유 연제의 대부분을 포스터 발표로 유도함으로써 서로간의 의견교환을 촉진하고 발표 시간을 절약하여 학회의 일정을 너무 빡빡하지 않게 조정하였다. 따라서 자유 연제 중 구연연제 수를 각국에서 6개씩 18연제로 제한하여 오전 오후 각각 4개 및 5개씩 2 parallel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이렇게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약 4년간 3-parallel로 진행하였지만 구연발표가 3개 장소에서 시행함에 따라 청중이 분산되어 듣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구연발표의 성과가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전체적인 일정은 일부에서 5-10분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거의 예정된 시간대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5월 25일(목요일) 오후: 직업성 근골계질환에 대한 workshop (8연제)
- 5월 26일(금요일)
오전 개회식 Keynote speech (3연제)
오전 session I & II (구연 각 4연제)
- 5월 26일(금요일)
오후 session V~XVI (포스터 총 105연제)
오후 session III & IV (구연 9연제)
- 5월 27일(토요일): 사업장 건강증진에 대한 symposium (6연제)

26일 개회식에는 최병수 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특별히 노동부 김성중 차관이 참석하여 3개국 참가자들을 축하해 주었다.

이어 진행된 특강에서는 일본, 중국 및 한국의 순으로 강의하였는데 그 연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았다.

1. The Global Asbestos Epidemic:
Implications for the East Asian Region

Ken Takahashi 교수(일본 산업의과대학
환경역학과)

2. Progress in Study on Chemical Acute
Lung Injury Jin - yuan Zhao 교수
(Peking 대학교 산업의학연구센터)

3. Professionalism in Occupational Health
맹광호 교수(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오전 발표가 끝나고 오후에는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다. 2002년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14
차 모임 때부터 시행된 포스터상을 올해에도
Best Presentation, Most Innovative, 및
Most Integritive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
상하였다. 포스터 발표에 대한 심사는 각국에
서 2명씩 위임받은 사람이 맡아서 수고해 주었
고 이를 취합하여 3개국의 간사가 집계하였다.
결과는 Best Presentation 부문은 대한산업보
건협회의 김강운 박사가, Most Innovative 부
문은 할빈의대의 Yong - hui Wu 선생이, 그리
고 Most Integritive 부문은 일본산업의과대학
의 Masanori Ohta 선생이 선정되어 3개국에
골고루 분배되었다. 포스터 상의 수여는 만찬
때에 진행되었다. 한가지의 흠은 105개의 포스
터 중에서 35개가 중국 참가자들의 연구이었는데
이중에서 20개가 부착되지 않았다. 초록을
제출한 중국 발표자들의 포스터 미 부착은 포
스터 발표를 점차 유도하기 시작한 2002년 제
14차 부산 모임 때부터 이미 있었던 문제이었던
다. 지난해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정
식으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올해에는 포스터발표 부착률이 43%(15개)로
그전 보다 점점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는 더 개

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러 참가자들이 말하
였다.

25일 점심에 있었던 3개국의 운영위원회에
서는 본 집담회를 매년 개최하도록 하며 2007
년 18차 모임을 5월 20일(일) - 22일(화)에 나
고야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하기로 결
정하였고 2008년에는 중국 Suzhow에서 개최
예정임을 중국측에서 제시하였다. 대한산업보
건협회와 일본 산업의과대학의 Homepage에
는 집담회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
는데 향후에는 프로그램을 비롯한 자세한 안내
와 초록집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서로 link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웃 나라를 이해하기 위하여 문
화적인 내용에 대한 특별 초청강연을 포함할
것과 학술위원회를 조직할 것이 제시되었고 이
밖에도 2015년 ICOH학회의 개최에 대한 추후
논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Workshop
의 결과를 Round table discussion으로 진행
할 것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러한 의제
에 대하여 금년 가을에 3개국 간사모임에서 자
세하게 의논하기로 하였다.

저녁 만찬에서는 최병수 협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일본 및 중국측 대표인 Okubo 교수
Wang 교수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었고 한국산
업안전공단 박길상 이사장이 축사를 해 주었
다. 이번 만찬에서는 제주민속공연단의 공연,
초청가수 왕소연과 최병수 회장의 공연 및 3개
국 대표의 노래로 과거의 그 어느 때 보다도 흥
겨운 만찬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속행된 노래
방에는 무려 90여명이 참석하여 밤늦게까지 서
로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
다. 🍷